

롤러코스터 탄 전기동

24 March 2014

윤성철 02.788.7134 basemetal@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동향

✓ **美 증시 하락.**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아 거래량 증가와 동시에 변동성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혹시 모를 우크라이나 사태 확대 우려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주저.

美 Dow -0.17%.

✓ **中 증시 상승.**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최근 경기 둔화 우려의 직격탄을 맞았던 광산주와 은행주에 수요가 몰리며 강세 주도.

中 상해종합지수 +2.72%.

✓ **美 달러, 주요통화대비 약세.** 미 달러는 세계 시장이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적응해 가면서 사흘간의 랠리를 마치고 하락.

달러/유로 1.3779→1.3794, +0.11%, 엔/달러 102.39→102.25, -0.14%

✓ **유가(WTI) 상승.**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서며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우려감이 다시 부각돼 유가가 지지.

WTI +0.03% \$99.46, Brent +0.44% \$106.92.

롤러코스터 탄 전기동

다시 올랐다. 물론, 내려갈 때는 급하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1일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0.43% 상승한 \$6,480.3을 기록.

일단 지난 21일 상승전환 이유는 우려완화이다. 알다시피, 중국부터 미국까지 우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악재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중국 당국부터 성장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지난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리커창 총리는 시장이 경직되는 차단하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미국발 우려도 점점 완화되는 모습이다. 물론, 우려가 사라졌다기 보다는 시장이 우려에 적응해 간다고 보는게 맞지만. 어쨌든 버텨 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너지면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일까?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현 가격 수준이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현 가격 수준에 많은 포지션들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버티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림 1] 월간 일목균형표로 본 전기동 가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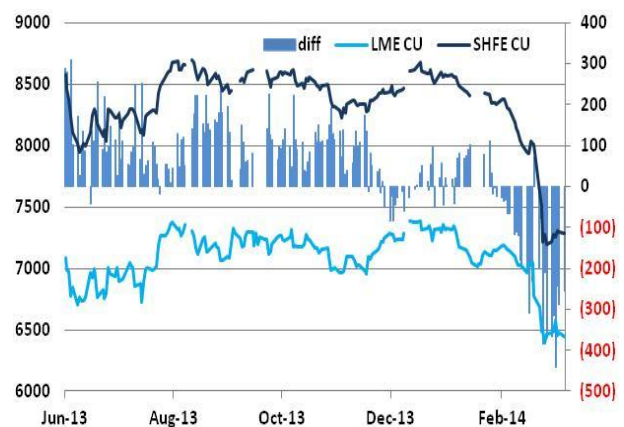
바로 최근 급락하면서 증가한 매도포지션 때문이다.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들어온 신규 매도포지션들이 가격이 버티면서 숏커버링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숏커버링 랠리로 이어지며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 투기적 포지션이 더 늘어난 상황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그림 3] 런던보다 상해 전기동 가격이 비싸다



출처: 로이터, 현대선물

악재가 호재로? 또한, 금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실망스러운 점도 악재에서 호재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3월 마르킷/HSBC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8.1로 전월 최종치인 48.5보다 하락하며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수치가 50을 하회한다는 것은 경제가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 당장은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본다. 때문에 금일 상승출발했던 전기동 가격도 지표 발표 이후 밀려 하락전환 했다. 하지만, 중요한건 이로 인해 중 당국이 부양책을 쓸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상황에서 언급했듯이 중 당국도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고 있는 모습. 금일 지표결과가 이런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 같다. 하지만, 무작정 오른다고 보기 힘들다.

바로 상해(SHFE)가격이 런던(LME)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볼 때 런던 전기동 가격은 상해보다 높다. 하지만, 중국 증취세(17%)를 고려할 경우 상해가격이 런던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갈수록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보세창고의 물건을 중국 내로 들어오는 것보다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게 이익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시장은 이를 중국의 수요둔화와 연결시켜 가격을 크게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전기동 예상레인지: \$6,200~6,949.

Gold

저가매수로 반등.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의 낙폭을 기록.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게 큰 타격을 준 듯.

금 현물은 이날 후반 0.5% 오른 온스당 1334.76달러에 거래. 전일 금 현물은 2월 28일 이후 최저인 1320.24달러의 장중 저점을 기록. 반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4월 인도분은 5.5달러 전진한 온스당 1336.0달러에 마감. 로이터 잠정집계에 따르면 거래량은 30일 평균보다 약 10% 많았음. 금 현물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국의 성장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난 17일 6개월래 최고가인 1391.76달러까지 전진. 그러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과 시장의 관심이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이동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섬. 금은 주간 기준으로는 약 3.5% 하락.

✓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종가	Change(\$)	%
전기동	6,442.0	6,538.8	6,412.5	6,480.3	27.8	0.43%
알루미늄	1,716.0	1,730.5	1,705.5	1,729.0	15.0	0.87%
아연	1,954.5	1,965.0	1,943.8	1,952.0	-1.0	-0.05%
납	2,072.0	2,087.0	2,064.0	2,075.3	6.8	0.33%
주석	23,100.0	23,101.0	22,800.0	22,800.0	-250.0	-1.10%
니켈	15,870.0	16,100.0	15,829.0	16,069.0	206.0	1.28%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 (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265,700	DOWN	2,150	145,925	119,775	0	2,150
알루미늄	5,414,875	DOWN	10,100	2,889,425	2,525,450	0	10,100
아연	780,075	DOWN	5,275	622,575	157,500	0	5,275
납	200,700	UNCH	0	171,550	29,150	0	0
주석	9,430	UP	185	7,245	2,185	185	0
니켈	283,578	UP	144	148,638	134,940	396	252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LBMA Lend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1M	2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339	1,336	0.10	0.11	1,332	1,332	1,332	-4.20
SILVER	2,055	2,017	0.54	0.54	20	20	20	-0.10
PLATINUM	1,437	1,439	0.00	0.00	1,445	1,445	1,441	6.00
PALLADIUM	776	789	0.00	0.00	797	797	788	0.00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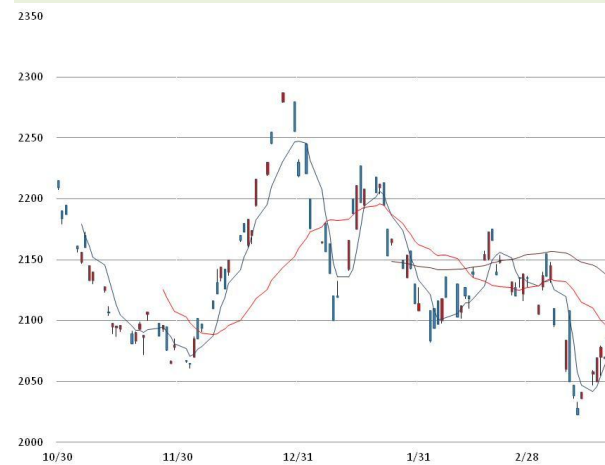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